

조주완 LG전자 사장, 글로벌 경영 강화… B2B 사업 가속화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법인 방문
B2B 중장기 파트너십 유지 주력
국가 정책에 따라 맞춤 대응 방침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조주완 사장은 최근 주요 경영진들과 함께 LG전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법인을 찾았다. 올해 초 인도 방문에 이어 3개월 만에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로 대표되는 신흥시장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해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이 속해 있다.

앞서 조 사장은 지난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진 시장 이외에도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발굴해 신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사장은 이번 출장에서 냉난방공조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을 찾은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링크드인 캡

(HVAC), 상업용 디스플레이,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등 주요 B2B 사업 중요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2B 사업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솔루션과 B2B 고객과의 중장기적 파트너십 유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부한 노동인구를 가진 글로벌 사우스에 해외 주요 기업들이 몰리게 되면, LG전자가 육성 중인 냉난방공조, 스마트팩토리 등의 B2B 사업 기회가 자연스

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 사장의 구상이다.

실제 LG전자는 최근 전 세계 냉난방 공조 업계 1위 기업인 일본 다이킨을 제치고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의 공급계약을 따냈다. LG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공조 사업 기회를 적극 확

보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거점 역할을 하는 ‘LG HVAC 아카데미’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태국 방콕에 아카데미를 확대 이전하며 연간 HVAC 엔지니어 1700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중국 선전에 아카데미를 신규 설립했다.

이미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에 나서 냉난방공조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사우스 대표 지역이자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등에 이어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에 ‘생활 가전의 종합 생산기지’로 인도 3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공장은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는 인도 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전한다

이와사키그룹에 일렉시티 타운 전달
“환경·기술·사회 공존 모델 보여줄 것”

현대자동차가 ‘바다 위의 알프스’로 불리는 일본 야쿠시마에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모델을 구축해 ‘무공해 섬 전환’에 힘을 보탠다.

현대차는 21일 야쿠시마 이와사키호텔에서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와사키그룹이 운영하는 타네가시마·야쿠시마 교통 주식회사에 무공해 전기 버스인 ‘일렉시티 타운’ 5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7월 가고시마 현을 중심으로 운수·관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이와사키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공급 소식을 전하며 일본 상용 전동화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장재훈 부회장은



21일 야쿠시마 이와사키호텔에서 진행된 ‘일렉시티 타운 전달식’에서 현대차 최남일 상무(왼쪽부터), 현대차 일본법인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 현대차 박상현 부사장, 현대차 정유석 부사장,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이와사키그룹 이와사키 요시타로 대표이사 사장, 이와사키그룹 이와사키 카미츠 총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야쿠시마 같은 특별한 환경이야말로 모빌리티 솔루션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며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사키 요시타

로 사장은 “일렉시티 타운을 지역 교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아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양립을 실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야쿠시마는 일본 열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섬으로 제주도의 약 4분의 1 크기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자랑해 세계적인 친환경 관광지로 손꼽힌다. 섬이 속한 가고시마현은 야쿠시마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렉시티 타운 공급이 야쿠시마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고 ‘환경과 기술,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현대차는 전날(20일) 야쿠시마와 일렉시티 타운의 V2H 기능 활용 관련, 야쿠시마의 전기차 활용을 위한 포괄적 연계협정도 체결했다. 일렉시티 타운은 현지 상황에 맞춰 특화 개발한 9m급 전장의 중형 저상 전기버스로 145kWh 용량의 배터리와 최고출력 160kW를 발휘하는 고효율 모터를 탑재했다. 산악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VDC)를 기본 장착하고, 고효율 배터리 관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으로 충전 효율과 주행 거리를 최적화한 게 특징이다.

차량은 6월부터 야쿠시마 공항과 미야노우라항구, 시라타니운스이교협곡 등을 잇는 타네가시마야쿠시마노선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기자간담회

“2차전지·수소 분야 물류 강화… 글로벌 진출 속도”

IPO 통해 종합 물류기업 도약
“최고의 성장주로 자리매김 할 것”

롯데그룹의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사명에 걸맞게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주7일 배송’과 버금가는 ‘악속배송’을 현재 28개사에서 2027년까지 178개사까지 늘린다. 특히 내년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77개사까지 늘릴 예정이다.

롯데그룹의 사업 확장과 맞물려 2차전지, 수소 분야 물류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로 삼는다.

현재 미국, 베트남, 헝가리 등 11개국

에 두고 있는 해외거점도 멕시코, 인도, 이집트 등으로 확대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내달 유가증권 상장을 앞두고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후 사업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병구 대표는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사업 구조와 국내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상장 이후에도 차별화한 고객 서비스와 특화 물류 역량을 강화해 자본시장에서 최고의 성장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공모주식수는 총 1494만4322주다. 공모 희망가는 1만 15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총 2017억원이다. 회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할 후 이달 12·13일 이틀간 일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3조5733억원의 매출과 902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창사 이후 최고치다.

강 대표는 “회사는 현재 그룹사 매출이 전체의 약 30%(2024년 기준 34.7%)에 이를 정도로 안정적이다. 우리는 3PL(3자 물류)을 지향하는 종합 물류기업이다. 그룹사 매출 비중은

40% 이내에서 관리되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비그룹사 비중을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의 수소(암모니아), 2차전지 관련 사업은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2차전지는 원자재 운송, 완제품 배송,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등 전체 밸류체인을 담당할 계획이다.

강 대표는 “하루 최대 310만 박스까지 가능한 물류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흡소핑, T커머스 시장도 공략해 나갈 것”이라며 “급성장하고 있는 CBE(국가간 전자상거래), 특히 중국 C커머스에 적극 대응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